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및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Self-control of Adolescence on the Teacher Attachment

강동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ong-Hoon Kang(crosskd@kohi.or.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6차년도 자료 중 설문에 응답한 2,854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훈련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자기통제력 | 교사애착 | 자아존중감 | 자기신뢰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elf-control of adolescence on the teacher attachment. In addition to this, it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of adolescence. For this reason, we analyzed the data of 2,854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the middle school in 2010 by a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lf-control of adolescence was found to gi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eacher attachment. In this case, the self-control of adolesce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Second,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of adolescence, it was found that self-control of adolescence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eacher attach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have proposed the importance of the self-control training of adolescence.

■ keyword : | Self-control | Teacher Attachment | Self-esteem | Self-confidence |

I. 서론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여러 대인관계 중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한 시기임에 따라 자기통제

접수일자 : 2015년 11월 10일

수정일자 : 2016년 0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1월 18일

교신저자 : 강동훈, e-mail : crosskd@kohi.or.kr

력과 교사와의 애착관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angney 등은 자기통제력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와 상관이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57]. 먼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과제를 할 때 능력을 부리고, 이것은 아주 낮은 과제 수행 능력과 더불어 낮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다음,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먹는 것과 음주에 있어 충동 억제가 더 잘되었고, 신체, 강박증, 근심, 분노, 공포증, 불안장애, 망상증에서 더 좋은 병리적 적응을 보였다. 그들은 또한 정신건강과 적응적 측면에서 더 높은 자기수용과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력과 같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더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였고, 회피, 이중성과 같은 문제성 애착유형은 더 적게 나타났으며, 화를 적게 낼 뿐더러 화가 났을 때에도 화를 잘 다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자기통제력은 개인이나 타인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높은 자기통제력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교사애착에 대한 연구동향들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촉진적으로 지각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나 학급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또한 학교부적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41] 교사와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학업중단의 위기가 높더라도 학교에 재학할 가능성이 높았다[4].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독립변수로,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선행요건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과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애착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최근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기신뢰감의 매개변수 여부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진숙에 따르면 자기신뢰감은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일탈 사이에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28]. 청소년일탈 여부는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에 대한 연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통제력이 희박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학업, 교우 관계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OECD 국가 중 10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관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그 가운데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51]. 또한 일탈과 관련하여 순간적인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분별력과 조심성을 갖고 눈앞에 벌어진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는지, 쉽게 흥분하는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0], 또한 선택의 상황에서,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을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을 충동성(impulsiveness)으로 보았다[51]. 결국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위가 주는 단기적·쾌락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가진 반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적인 책임 행동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지연하지 못하고 자기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58].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비행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으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18][23][50], 충동적이고 학업성취가 저조하면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57].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의존, 학교폭력 등도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10].

2.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3].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와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 지를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55]. 또한 자기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행하는 과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준과 관련되며[48], 강력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로 존재한다[52].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속에서 주로 형성되는데[47], 스스로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43],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인격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54].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약물남용, 우울, 범죄, 자살 등과 관련이 있으며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26][49][55].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심약하고, 비밀관적이며, 자신감이 낮고 불안정한 성격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의 부정적 영향, 열등감, 무가치성, 외로움이라는 만성적인 고통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53].

김요셉 등은 자기신뢰감(self-confidence)을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관의 부분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자기신뢰감 척도(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의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 책임있는 삶의 태도를 묻는 3개의 문항)를 통해 자기효능감이나 문제해결, 자신감의 하위 속성을 바탕으로 자기신뢰감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12]. 자기신뢰감은 청소년의 작업성숙도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5][15],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낮추는[9][11][17]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개념적으로 자기신뢰감은 신뢰감으로부터 발달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신뢰감을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에 대한 신뢰감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자기에 대한 신뢰감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5],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으로 활용된다[11][15][33]. 또한 자기신뢰감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관련지어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24], 자기신뢰감과 또래관계 친밀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자기신뢰감이 또래 애착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요셉[11]은 자기신뢰감이 또래관계 친밀감과 관련 있는 친구 애착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문이정과 김종남[17]도 대인신뢰감과 자기신뢰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 자기신뢰감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자기신뢰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념적 정의에서 일부분 차이가 발생한다.

3. 교사애착의 개념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밀접한 사람을 통해 느끼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56].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애착이 형성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불안한 상황에서 애착 대상자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교사와의 애착이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학생-교사간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으며[37], 교사와의 안정된

애착의 형성은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보다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8]. 이외에도 교사와 맺어진 애착의 질이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집단은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교사의 영향력이 부모나 또래보다 크며[34], 교사의 지지를 청소년들이 지각할 때와 신뢰가 높을 때 학습동기가 향상된다[22]는 등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 교사와의 애착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관계에서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4.1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이며 삶 자체를 훨씬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일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며, 이후의 삶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박은민의 연구에서는,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자존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와 또래 및 어머니와 관계형성을 잘 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다[19].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자기신뢰감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자기신뢰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성경은, 남학생일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신뢰감이 다른 변인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9]. 구승신·박성현은, 자기신뢰감은 긍정적 정신건강의 지표로서 아동청소년의 직업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5]. 이 지숙은 탄력성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이 청소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과 일탈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결과 자기신뢰감은 역압변수로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일탈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그간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이 교사애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같이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4.3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교사와의 애착은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와 교사의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안정감을 증가시키며,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1].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는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으며[38],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자기조절 및 통제를 잘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교사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고[46],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및 의사소통 수준은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교사애착과 자기통제에 대한 긍정적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6][25].

하지만 상기연구들은 대체로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과의 상관성에 주목하거나 교사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교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기통제력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요인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여 교사에 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교사에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에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교사에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에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신뢰감을 통해 교사에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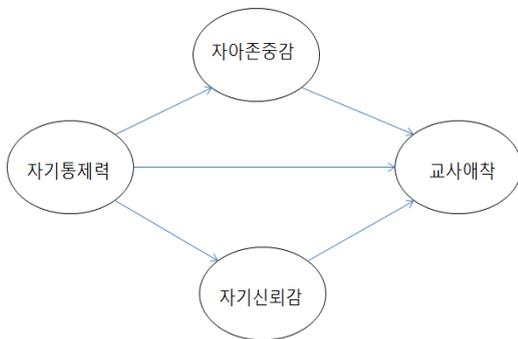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 2010년자료(6차년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61만여 명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선출된 3,449명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한 자료이다. 조사시점은 2008년 10월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으며, 청소년은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2003년도부터 계속된 동일문항의 패널조사를 6년차까지 이어온 대상(고졸이후 1년차)에게 적용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 부합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2003년에 실시된 1차년도 자료는 12년 전 자료로서 조사시점이 오래되어 현재시점에 적용할 경우 연구의 정확성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기통제력과 교사에착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 취지에 상기의 연구 대상들이 적합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춘기를 충분히 겪고 동일문항을 6년째 응답하고 있는 6차년도 대상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표 중 34번 항목의 하위 6개 항목(“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의 명료화를 위해 위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교사에착으로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표 중 35번 항목의 하위 3개 항목(“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으로 구성하였다. 위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3 매개변수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표 중 49-1번 항목 중 하위 6개 항목(“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으로 구성하였다. 위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항 중 부정문으로 질문한 3문항은 역코딩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자기신뢰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표 중 49-2번 항목 중 하위 3개 항목(“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의 매개변수이기는 하나 연구모형 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기능을 하고 개념 상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공선성 진단방법인 Durbin-Watson 통계량 검정을 한 결과 통계량 값이 2.02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통계량 값은 그 수치가 2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0 또는 4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모형이 적합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매개로 교사에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SPSS 21.0 for Windows 와 AMO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한 후, 측정의 적합도 검토를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변수사이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이르는 구조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 경로별 관계와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기본적인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을 활용하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os 프로그램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 RMSEA, NFI, CFI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RMSEA 값이 0.05 이하이면 매우 높은 적합도로, 0.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판단하고[45], NFI와 CFI는 0부터 1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0.9이상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2,854명이며, 남성이 1,362명(47.7%), 여성이 1,492명(52.3%)을 차지한다. 주요 변수에 대한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주요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5점 만점에 3.6810점이었으며, 교사애착이 2.6534점, 자아존중감이 3.5115점, 자기신뢰감이 3.7101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에 비해 교사애착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고 표준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신뢰감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는데 반면,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자기 통제력	3.6810	.73935	.046	.092
교사 애착	2.6534	.80512	.052	.104
자아 존중감	3.5115	.66587	.046	.092
자기 신뢰감	3.7101	.65584	.046	.092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부모학력, 가족동거여부,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값은 2.377(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된 패널데이터라는 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보다는 모형의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초 문항에서 낮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제력 문항이 최초 6문항에서 3문항(“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학교수업을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으로, 자아존중감 문항이 3문항(“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

라고 생각한다”)으로 축소되었고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개선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본 연구의 변수인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은 잠재변수로서 복수의 관측변수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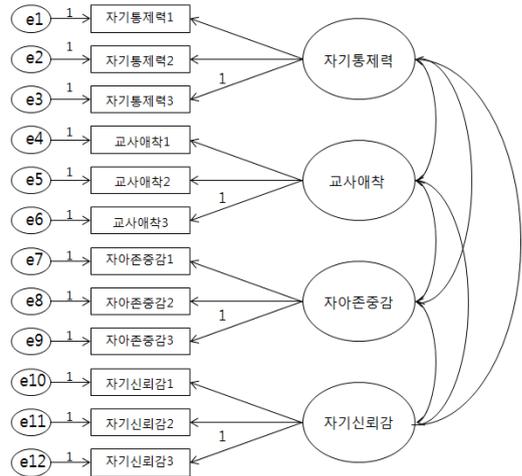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의 경우 328.741 (df=48, p=.000)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지수이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매우 좋은 적합도(NFI=.968, TLI=.961, CFI=.973, RMSEA=.041)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변수별 요인적재량은 [표 2]에 정리하였다.

각 잠재변수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표 3]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부분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 변수	측정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C.R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1	3.52 (1.035)	1.371	.598	.098	13.459***
	자기통제력2	3.87 (0.952)	1.351	.641	.100	13.459***
	자기통제력3	3.65 (1.041)	1.000(r)	.434		
교사애착	교사애착1	2.43 (.985)	.975	.697	.035	28.078***
	교사애착2	2.82 (.916)	1.130	.854	.040	28.532***
	교사애착3	2.70 (.970)	1.000(r)	.70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3.46 (.784)	.782	.621	.025	31.417***
	자아존중감2	3.39 (.815)	1.086	.831	.028	38.529***
	자아존중감3	3.68 (.771)	1.000(r)	.809		
자기신뢰감	자기신뢰감1	3.69 (.740)	.982	.788	.024	41.116***
	자기신뢰감2	3.73 (.747)	1.071	.852	.025	43.079***
	자기신뢰감3	3.72 (.763)	1.000(r)	.778		

*** p<.001 (r) = 준거지표

표 3.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자기통제력	-			
교사애착	.022*	-		
자아존중감	.004	.105***	-	
자기신뢰감	.032***	.095***	.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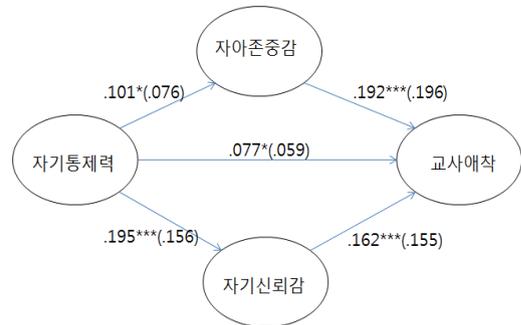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은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에 대해 [그림 1]에서 설정된 영향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06.095$ (df=49, p=.000), NFI=.903, IFI=.907, CFI=.907, RMSEA=.086으로 나타났다. RMSEA는 .1 이하로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이외 다른 지수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45].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076)과 자기신뢰감(.156), 교사애착

(.059)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9][10][31][57]. 그리고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교사애착(.196)에, 자기신뢰감 또한 교사애착(.155)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p<.01 *** p<.001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

그 다음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이 매개변수 없이 가설1,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은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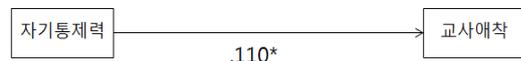


그림 4.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간의 관계

다른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경로계수는 .110이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에 대한 애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P<.05)를 나타내었다.

Baron과 Kenny에 따르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며, 매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7]. 결과적으로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은 종속변수인 교사애착과 유의한 관계에 있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도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매개변수를 포함하기 전에 비해 매개변수를 포함한 후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분해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9, 간접효과는 .039로 모두 .098의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자기통제력→자아존중감→교사애착’ 및 ‘자기통제력→자기신뢰감→교사애착’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신뢰감 ← 자기통제력	.156*		.156*
자아존중감 ← 자기통제력	.076		.076
교사애착 ← 자기통제력	.059*	.039*	.098*
교사애착 ← 자기신뢰감	.155*		.155*
교사애착 ← 자아존중감	.196**		.196**

* $p < .05$ ** $p < .01$ *** $p < .001$ / 표준화계수

V. 결론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모두 존재하였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 모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매개효

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장했듯이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것과 반대로, 자기통제력 또한 교사와의 애착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자아존중감 연구와 마찬가지로, 애착관계 실패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애착관계에 실패하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한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 을 저지르거나 대인관계, 특히 교사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형성 하는데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매개효과를 나타 낸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잘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자기통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통제력에 대한 어린시절부터의 체계적인 훈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교우 간의 따돌림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폭력사태 마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볼 때 어린시절부터 자기통제력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지-행동적 자기통제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여 부적응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자기통제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에 도입되어 학생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통제력 훈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 형성에 따른 유용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

요한 함의를 갖는다.

연구결과의 기술통계분석을 보더라도 다른 변수에 비해 교사에착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사에착의 세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 2.4319(SD=.98524)’,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 2.8239(SD=.91646)’,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2.7043(SD=.97039)’ 등 5점 만점에 모든 항목이 보통(3점) 이하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강화를 통해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회복하자는 데 있는 것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이 강화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자기인생을 더욱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더 많이 실시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미라, “정서순화 프로그램 중재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전략중재연구, 제2권, 제1호, pp.41-76, 2011.
- [2] 강상경, 좌현숙, “지역사회정신보건 재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3권, pp.185-213, 2007.
- [3]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 [4] 구분용,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2.
- [5] 구승신, 박성현, “초등학생의 직업성숙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5권, 제1호, pp.119-131, 2007.
- [6] 구자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학교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217-239, 2004.
- [7] 김건숙, 이호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또래관계 친밀감의 관계: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호, pp.331-356, 2015.
- [8] 김경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교사 애착 간의 중단적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9] 김성경,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1호, pp.381-406, 2008.
- [10] 김영민, 임영식,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중단적 변화추이 : 부모, 또래, 교사에착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303-327, 2014.
- [11] 김요셉,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신애원,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3호, pp.103-126, 2011.
- [13] 김지영, 이형실,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2권, 제1호, pp.21-32, 2010.
- [14] 김지혜,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41-62, 2012.
- [15] 남소정, *학교의 진로지원활동과 학생의 자기신뢰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6] 문영주,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 조직공정성,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9권, 제1호, pp.53-81, 2007.

- [17] 문이정, 김종남,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취약 성격유형의 관계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877-1893, 2013.
- [18] 민수홍,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 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25, 2005.
- [19] 박은민,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pp.75-88, 2010
- [20] 박재연, 임연옥, 윤현숙,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 실존적 영성, 가족 의지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4호, pp.81-105, 2010.
- [21] 박정주, “교사에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분석,” 한국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333-352, 2011.
- [22] 박진옥, *아동이 지각한 교사지지 및 교사신뢰와 학습동기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3] 박현수, 정혜원,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 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 pp.5-34, 2010.
- [24] 백혜정,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pp.357-373, 2007.
- [25]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127-148, 2006.
- [26] 심희옥,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 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연구,” 아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35-48, 1998.
- [27] 안차수, “초등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예방프로그램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3호, pp.347-380, 2008.
- [28] 이상은,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9] 이성희, 이선애,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통제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12권, pp.1-22, 2007.
- [30] 이인숙,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및 교사에착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1] 이지숙, “청소년 문제행동을완화하는 보호요인 연구 : 조절요인과 Suppressor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pp.281-300, 2009.
- [32] 이지연, 정익중, “따돌림 피해 경험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24권, pp.219-239, 2013.
- [33] 이화석, *생활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정시설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변화*,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4]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1998.
- [35]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223-244, 2006.
- [36] 정혜원, 박성훈,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범죄와비행 창간호, pp.189-207, 2011.
- [37] 조은정,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2008.
- [38] 최정아,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지지, 자아통제력,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pp.189-212, 2010.
- [39] 허의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교사에착의 효과검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0] 홍성훈, 김희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제36권, 제1호, pp.33-53, 2005.
- [41] 황성혜,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케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제17권, 제4호, pp.211-239, 2010
- [42] 황성필, *고교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43]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6.
- [44]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ion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1-1182, 1986.
- [45] M. W. Browne, and R. Cudeck,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4, pp.445-455, 1989.
- [46] C. H. Burt, R. L. Simons, and L. G. Simons, “A longitudinal test of the effects of parenting and the stability of self control: Negative evidence for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Vol.44, pp.353-396, 2006.
- [47] C. H. Cooley,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Shocken, 1964.
- [48] S. Coopersmith,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and Company, 1967.
- [49] W. J. Edwards,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 *Adolescence*, Vol.31, No.12, pp.973-989, 1996.
- [50] M. Gottfredon and T. A. Hirschi,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51] A. W. Logue, *Self-control*, Prentice Hall, 1995.
- [52]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per, 1954.
- [53] C. Mruk,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5.
- [54] C. Rogers, *On becoming a person*, Houghton Mifflin, 1961.
- [5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56]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Psychanalysis*, Vol.39, pp.350-373, 1969.
- [57] J. P. Tangney, R. F. Baumeister, and A. L. Boone,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72, No.2, pp.271-322, 2004.
- [58] K. Young and J. Suler, *Intervention with Pathological and deviant populations within an online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San Francisco, 1998.

저 자 소 개

강 동 훈(Dong-Hoon Kang)

정희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8월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복지정책, 불평등, 지역복지 등